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64

K-water는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남지

2023년 7월호



K-water는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물위기를 극복하고
원활한 용수 공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water__official

#kwater대체수자원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대체수자원을 검색하고
<kwater대체수자원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대체수자원을 검색
→ <kwater대체수자원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접수 마감일 7월 25일
선물 발송일 8월 15일경

※ 8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대체수자원





#온배수재이용



#하수처리수



#해수담수화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7 | Vol. 664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7월 7일
통 권 664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8 윤석대 제16대 사장 취임

10 제로여행
반달 모양의 백마강 안에 담긴 충청남도 부여

16 제로픽
부여에서 만나는 에코 여행

18 제로라이프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팁

20 사람이 애쓰지(ESG)
지구의 눈물을 기록하는 김진만 PD

24 지구보고서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26 친환경 지구여행
물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만난 장면들

30 두잇두잇
K-water 조정선수단 김병진 선수가 알려주는 여름철 물놀이 스트레칭

32 건강처방전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34 수(水)타벅스가 간다
 힘찬 여름을 응원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로맨틱 버스킹

38 숫자로 보는 K-water
 순환경제를 이끄는 K-water의
 미래수자원

40 K-water 리포트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으로
 대체수자원 개발, 물부족 해결에 앞장섭니다



44 K-water ESG
 ESG 경영으로 다시 태어난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

46 어느 멋진 날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가장 시원한 방법
 스쿠버다이빙

50 마음상담소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여름철 무기력증



52 오프챌린지
 함께 용기내요! 비닐 OFF

53 이슈체크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트래블테크

54 K-water 포커스
 윤석대 K-water 사장, 홍수 대응 태세
 종합 점검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다

56 K-water News

58 수놓은 문화

62 방울이와 DIY

64 K-water SNS





대한민국 재도약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 활짝

윤석대 사장이 K-water의 제1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선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K-water에 주목해 보자.

지난 6월 19일, K-water 본사 대강당에서 윤석대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윤석대 사장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기후위기와 친환경 전환,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질적으로 혁신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무엇보다 취임사를 통해 ‘심화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물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손꼽으면서, “기후위기 심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물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게 윤석대 사장의 첫 번째 제안이다.

또한, 친환경 전환에 따라 물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강조했으며, “초순수와 해수담수화, 물재이용, 수열 등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발굴하고 해외 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물관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글로벌 기업으로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도 다짐했다.

윤석대 사장은 계속해서 취임사를 통해 “가뭄, 수질 등 국가적 물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곳에 물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R&D 투자,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렴과 공정, 상식이 바로 선 한국수자원공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직 혁신을 위한 전사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며 노사가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갈 것 또한 요청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노동조합은 윤석대 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소망, 의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조합원의 희망나무’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희망나무에는 청렴과 존중의 조직문화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길 바란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은 윤석대 사장에게 최고의 한국수자원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하며 신입사장으로의 취임을 환영했으며, 윤석대 사장은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국민과 직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물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석대 사장은 취임식 당일 직원이사회, 자회사 직원들과 오찬을 가진 이후 본사 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신입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소망, 의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조합원의 희망나무’.
2. 직원이사회, 자회사 직원들과 함께한 오찬.
3.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윤석대 사장.





반달 모양의 백마강 안에 담긴 ————— 부여



부여는 차를 타고 획 돌아보고 오는 여행지가 아니다.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눈과 귀 그리고 손바닥의 감촉으로 느끼는 여행지다. 물길 따라 때론 걷고 때론 자전거를 타며, 온몸으로 느끼는 백제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글·사진_최갑수(여행작가) 일러스트_이신혜





백마강



궁남지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지 이야기



백제문화단지



백제 왕궁과 마을을 재현한 곳. 당시 생활상을 재현한 사비성에는 왕궁 및 능사, 생활문화 마을, 위례성, 고분공원, 역사문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생활문화 마을에는 백제시대 귀족부터 군관가옥, 그리고 중류계급과 서민계급의 집들을 재현해 놓았다.

☞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비단을 두른 듯 아름다운 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금강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금강(錦江)은 국내 4대강 중의 하나로, 비단강이란 뜻을 지녔다.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산수가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전북 장수 뜰방샘에서 걸음을 시작해 무주에서 진안천과 적상천, 남대천이 물줄기를 보탠다. 그리고 금산 제원면에 이르러 완만한 산줄기 사이를 지나며 제법 강폭을 넓히고 충북 영동을 지나면서 큰 강줄기로 변한다. 공주와 부여를 지나 군산을 적신 후 바다로 나아간다. 길이는 401km. 딱 천릿길이다.

부여 군민들이 금강을 일컫는 이름은 백마강이다. 부여 서쪽을 반달 모양으로 휘감아 흐르는데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의 천정대에서 시작해 낙화암, 구드래나루를 거쳐 세도면 반조원리까지 약 16km를 달린다. <삼국사기>에는 백강, <일본서기>에는 백촌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마(白馬)는 '큰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백마강은 '큰 나라가 있는 강' 또는 '큰 나라의 강'을 의미한다. 금강은 아직 사람과 손길이 덜 댔다. 강가에 깔린 자갈은 초여름 햇살을 담아 반짝인다. 옥색 강물도 바람을 받아들이며 부드러운 잔물결을 만들어 낸다. 저녁 무렵이면 주홍빛 아스라한 윤슬도 만들어 낸다. 백제는 이 금강에 기대어 나라를 세웠고 번성했다. 123년 동안 백제의 왕도로 자리한 부여는 백제의 아득한 세월이 깃든 역사의 보물 창고다. 작은 도시 곳곳에는 옛 백제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웅기종기 모여있어 다채롭다.



백제 정원의 정수, 궁남지

백제의 은근하고 그윽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 있다면 바로 궁남지다. 궁남지는 '궁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궐의 남쪽에 20여 리나 되는 긴 수로를 파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634년 무왕시절을 만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이라고 한다. 1만 평 정도에 이르는 지금의 궁남지는 1965년에 복원한 것인데, 원래 규모의 1/3쯤이었다.

궁남지 한가운데의 '뜬 섬'에는 포룡정(泡龍亭)이라는 현판이 걸린 정자가 있다. 이는 백제 무왕의 어머니가 궁남지에 살던 용이 나타나자 의식을 잃은 뒤 무왕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탄생 설화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뜬 섬으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건너면 정자로 들어갈 수 있다.

궁남지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어릴 적 이름이 서동으로 불렸던 무왕은 신라의 국정을 탐지하라는 밀명을 받고 마를 파는 상인으로 위장해 서라벌로 잠입한다. 그리고 어느 날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

서동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 도련님을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는 내용의 서동요를 직접 지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번지자 왕은 결국 선화공주를 내쫓았고, 무왕은 기다렸다는 듯 백제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신집살림을 차린 곳이 바로 궁남지터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문화의 진수로 손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능산리사지에서 발굴된 세기의 보물로 백제 공예품의 절정을 보여준다. 전체 높이 62.5cm. 용 모양의 향로받침 위에 연꽃 모양의 향로 몸체를 사뿐하게 얹었다. 불교문화 연구가들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불교의 이상향인 연화장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부소산성

백제 속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곳

금강은 아름답지만, 백제 비운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흐르는 강이기도 하다. 금강을 한눈에 굽어보며 자리 잡은 곳이 부소산성이다. 위례성(서울), 웅진(공주)에 이어 백제의 마지막 왕도였던 사비(부여)의 역사가 진하게 배어 있다.

부소산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사비성 또는 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웅진(지금의 공주)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던 백제 성왕 16년(서기 538년)에 왕궁을 수호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소산성의 둘레는 약 2.2km. 해발 106m의 낮은 산인 데다 소나무, 왕벚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 사이로 산책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노약자도 쉽게 걸을 수 있다.

부소산성의 여행은 사비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길은 소나무가 울창한 데다 널찍한 돌이 깔려 있어 산책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처음 만나는 곳은 삼층사. 백제 삼층신인 성충과 흥수, 계백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곳이다. 삼층사를 지나면 백제시대 왕과 귀족들이 계룡산 연천봉에 떠오르는 해를 맞으며 하루를 계획했다는 영일루, 백제시대 곡물을 저장했던 창고인 군창지가 차례로 나타난다. 군창지를 지나면 반월루. 전망 좋은 누각이다. 부여읍내와 구드래 들판, 반월형으로 읍내를 감싸고 도는 백마강까지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백제, 그 우아함과 만나다

백제는 해상왕국인 만큼 일본, 중국과 왕래했다. 구드래나루는 당시 해상왕국 백제의 출발점이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드나드는 배로 붐볐다. 지금도 나루터는 여전하다. 대신 사신과 승려, 학자, 예술가가 아닌 관광객을 싣고 유람선이 다닐 뿐이다. 사람들은 “백마강 달빛 아래, 물새가 우~울고…”라는 유행가를 들

으며 백제의 화려했던 한 시절을 떠올린다. 어느새 조각 공원도 들어서 있다. 세계 각국 거장들의 조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자전거로 여행해 보기를 권한다. 대청댐에서 시작해 금강하굿둑까지 총 146km에 달하는 금강 자전거길이 지나는 구간이다. 백제보에서 구드래나루를 거쳐 규암 선착장에 이르는 백마강 양쪽의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고구려 장수왕의 칼에 개로왕을 잃은 뒤 한성백제시대를 마감하고 공주에서 64년 동안 국력을 키웠던 백제는 성왕이 부여로 천도한 재기를 도모하지만, 마침내 의자왕에 이르러 그 역사를 마감한다. 부여는 6대 동안 123년에 걸쳐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고도다.

부여를 여행하다 보면 자주 그리고 오래 멈추게 된다. 미륵반가상의 은은한 미소 앞에서, 아라비아의 그것보다 더 화려한 백제의 문양 앞에서, 고도를 둘러싼 산성을 건다가 문득 백마강이 내려다보이는 성벽 앞에서 멈춰 서 있으면 잊혀진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다시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백제/천오백년, 별로/오랜 세월이 아니다/우리 할아버지가/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듯/몇 번 안가서/백제는 우리 옛그제, 그그제에 있다..’ 부여 출신 시인 신동엽의 그의 시 ‘금강’에서 이렇게 노래했듯이 말이다.



낙화암

고란사

낙화암 아래에 있다. 낙화(落花)가 된 백제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지어졌다. 지금도 식수로 애용되는 고란수가 나오고 바위틈에서 자라는 다년초 식물 고란초가 있다.

☞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1번지



찾아가GO, 체험하GO
곧게 뻗은 백마강 따라, 부여 여행 스폿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or.kr



에코스텝 1 (구드래나루터 선착장)

백마강 유역에 있는 구드래나루터는 백제시대 때 도성인 사비성으로 들어가는 큰 항구였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계절마다 다채롭게 피는 꽃길 사이로 산책로가 나오어 가을만 하다.

에코스텝 2 (반산저수지)

흐드러지게 가득 핀 반산저수지의 연꽃은 또 하나의 숨겨진 비경이다. 반산저수지는 1956년에 준공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하고 있으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거닐기 좋다.



부여에서 만나는 에코 여행

짙은 녹음이 땅을 물들이는 계절, 부여로 에코 여행을 떠나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부터 부여의 제철재료를 만든 착한 레스토랑,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편집숍까지 오감을 만족시킨다.

글. 우수정 사진 제공. 부여군청, 부여제철소, 멜리사센츠



부여의 떠오르는 랜드마크

군수리 금강 하천부지에 위치한 백마강 테마파크는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으로 하늘자전거, 백마강 정원열차, 수륙양용버스 등의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자전거 페달을 굴려 266m 길이의 모노레일 위를 달리는 친환경 체험시설 하늘 자전거는 자동주행 방식과 자가발전 방식 2가지로 운영되어 선택할 수 있다. 물살을 가르며 수상 관광을 할 수 있는 수륙양용버스는 고란사, 부소산, 낙화암 등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정원열차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필수 체험 코스로 꼽힌다. 백마강의 모습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전망대를 추천한다. 전망대는 역대 백제왕 31명의 의미를 담아 31m의 높이로 설계했으며, LED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백마강 테마파크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길 56-33
운영시간 09:00~17:30(휴게시간 12:00~13:00)



09:30 a.m





2

13:10 p.m

제철 재료로 만든 퓨전요리 레스토랑

백마강 테마파크에서 신나게 체험했다면 이제 배를 채울 차례다. 부여제철소는 언뜻 보면 레스토랑 이름이라 예상하기 어렵지만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유년 시절 요리사를 꿈꿨던 김한솔 대표가 부여의 매력에 반해 2021년 6월에 오픈했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부여 땅에서 자란 채소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제철 음식을 만들게 됐다고. 시그너처 메뉴로는 취나물 이 향긋한 이탈리아식 라이스 튀김인 아란치니, 가리비 관자와 취나물 페스토로 맛을 낸 파스타, 한우로 만든 라구소스와 애호박을 썰어 볶은 라자냐 등이 있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에서의 식재료 배송을 줄이고 지역 내 농가와 상점을 이용한다. 7월에는 상큼한 유자 소스를 곁들인 방울토마토 냉파스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여제철소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은로 72-1
전화번호 050-71474-8208
운영시간 금~일요일 11:30~20:30
 (휴게시간 14:30~17:30)

3 15:00 p.m

가치를 공유하는 제로웨이스트 숍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면 멜리사센츠에 가보자. 국립 부여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멜리사센츠는 윤혜경 대표가 2020년 6월에 오픈한 곳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랑하는 현지인들의 아지트와 같은 곳. 환경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게 된 주인장이 제품을 꾸리다 보니 제로웨이스트, 레스웨이스트 매장이 탄생했다. 고체 샴푸와 린스, 재생 유리를 사용한 주방용품, 리필이 가능한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생분해 소재로 만든 위생용품과 유해 성분이 없는 화장품은 물론 유기농 와인과 은으로 액세서리도 판매한다. 유기농 와인의 경우 12병이 팔릴 때마다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의 제품이라니 특별하다. 이곳은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대부분의 제품을 사용해 보고 친환경 가치와 사용성 모두를 만족하는 제품을 선보인다. 멜리사센츠는 7월 중 인근으로(부여군 계백로 305) 매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 확인하고 방문할 것.

멜리사센츠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8-7
전화번호 041-833-0770
운영시간 13:00~18:30(일요일 휴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동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라면 주목할 것. 자동차보다는 기차, 자전거 등을 이용하자. 자전거,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 약 75%가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여행의 발이 되어줄 '탈 것'들을 통해 실현하는 탄소제로 여행을 떠나보자.

글. 김영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팁



남만 가득,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이 가솔린 기준 208g/km, 비행기가 285g/km인 반면,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50g/km으로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경을 맞댄 유럽의 경우에는 비교적 먼 거리라도 탄소 배출을 고려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7년 개통한 강릉선 KTX는 서울-강릉 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기존 디젤 기관차 대비 탄소 배출량을 70%가량 줄이는 신규 열차를 도입하고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개발에 성공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기차 운영에 힘쓰고 있다.

TIP 기차만큼 효과적인 것이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30%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로 돌려받아 교통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착한 비행기 이용하기

그렇다면 혹시 비행기가 탄소 배출의 주범인 걸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3% 수준에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 또한 친환경 항공기 운영과 바이오 연료 도입 등을 통해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에어프랑스는 기내식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등으로 대체하고, 출발 항공편 내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비행기와 프랑스의 고속열차인 테제베(TGV)를 함께 예약해 결항이나 지연 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체 편을 마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대한항공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곡물이나 식물,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항공유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강과 탄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전거

자동차의 생산에서부터 이용, 폐차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지난 2022년 SUV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 톤에 이르렀다. 2km 이내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보자.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탄소 배출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발굴과 자전거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한 여행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TIP 대한민국 최초로 도로 중앙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가 있다. 대전-세종을 잇는 연결도로 중앙에 있는 태양광 자전거 도로는 8차선 도로 한가운데 통로를 통해 자전거로 달릴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해를 막아주니 쾌적하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구의 눈물을
기록하는

김진만 PD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곰>을 연출한 김진만 PD.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지구 다섯 바퀴 이상을 돌았다고. 오랜 시간의 땀과 눈물로 기록된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고 깊은 울림을 준다.

글_우수정 사진_제공_김진만 PD



66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있는
 프랑스 샤모니에는 눈이 오지 않아
 스키장이 폐업하고, 남극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와
 투발루는 물에 잠기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죠.

99

대한민국 대표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기까지

김진만 PD가 연출했던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은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시청률인 25.3%를 기록했다. 다큐멘터리는 시청률 10%를 넘으면 소위 ‘대박’이라 말할 정도로, 비인기 장르인 것을 고려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마존의 눈물>은 방송 첫 회부터 15.7%를 기록한데다 동시간대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치고 기어코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연출한 <남극의 눈물> 다큐멘터리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황제펭귄의 1년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 다큐멘터리 PD로 자리매김했다. 평소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다큐멘터리 하나를 찍기 위해 300일을 혹한의 남극에서 보내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아마존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처음부터 환경 다큐멘터리 PD를 꿈꾼 건 아니었어요. 환경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는 본래 예능국 PD로 입사했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과 동시에 일해야 하는 예능 연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말한다.

“일이 재미없었어요. 고민 끝에 부서를 교양국으로 옮겼죠. 소수의 인원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한 선배 PD의 권유로 <아마존의 눈물>의 연출을 맡게 됐고, 이때부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오지에서 찾은 행복

떠밀리듯 하게 된 <아마존의 눈물> 제작은 김진만 PD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환경 다큐멘터를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았던 것이다.

“아마존에서 원시 환경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조에족을 촬영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를 통해 대중에게 환경문제를 알릴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도 체득했죠. 아마존을 비롯한 남극, 북극 같은 오지를 촬영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자연을 마주하면 잠시 힘듦을 잊게 되죠. 촬영하러 다닐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에게 다큐멘터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의 남는 순간을 묻자, 남극에서 황제펭귄 새끼들이 태어나던 모습을 꼽았다.

“알에서 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펭귄들이 놀라지 않도록 펭귄 탈을 쓰고 오랜 시간 촬영에 임했다.

같아요.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 아빠 황제펭귄은 4개월 동안 눈과 얼음만 먹으며 알을 품고 있어요. 눈 폭풍 속에서도 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기에 새끼들이 깨어나는 순간이 경이롭게 느껴졌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다

김진만 PD는 다큐멘터를 제작하면서 세계 곳곳의 오지를 누볐다. 그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장소는 어디였는지 물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다큐멘터리 <곰>을 찍었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캄차카반도와 시베리아는 물론 남극과 아마존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야생동물의 종족 번식과 생존 본능을 담은 다큐 플렉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 참여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봤던 화천이나 금강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특히 금강 상류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자연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가급적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원단이 좋은 옷을 구매해 오래 입는다. 아크릴이나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옷은 결국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0%를 패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번 감행하기에는 쉽지만, 꾸준히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아마존의 눈물>에 나온 조에족은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요.

필요한 것은 모두 자연에서 얻고 욕심부리지 않죠. 많은 동물을 사냥해 남기기보다는 덜 잡고 배고프게 사는 방식을 택해요. 조예족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약간의 불편함은 그들 본연의 삶을 존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만약 그들이 욕심을 부렸다면 어땠을까. 동물 개체 수 감소로 사냥터가 넓어져 자연이 파괴되고, 보다 편하게 사냥하기 위해 총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번 문명을 받아들인 부족은 마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김진만 PD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가져온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각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있는 프랑스 샤모니에는 눈이 오지 않아 스키장이 폐업하고, 남극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와 투발루는 물에 잠기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죠.”

그가 아마존에 다녀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조예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다.

“2020년 3월, 브라질에서 조예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작년엔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아비뇽 교황청에서 아마존 부족민들의 사진전을 개최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제가 촬영했던 조예족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반가웠죠!”

김진만 PD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아마존에 다시 가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미국을 제치고 콩과 소고기 수출 1위 국가가 된 브라질 아마존의 변화를 꼭 담고 싶다고. 내년에는 뚜렷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남극으로 떠날 계획이다. 가족과 떨어져 남극기지에 머무는 대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10년 동안의 기후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 생태의 현장을 기록해 다시 한번 뜨거운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1. 자연에 최대한 섞여들기 위해 제작한 팬더 코스튬.
2.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곰>의 내레이션을 맡은 정해인 배우와 김진만 PD.
3.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곰>의 한 장면.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글. 박상욱 JTBC 기자

폭염에 대비한 각종 대책이 5월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 지원에 1천억 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지자체들도 맞춤형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됐습니다. 지난 3년간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높아진 온실가스 농도 때문에 지구가 계속 달궈져 온 것이죠. 이젠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마저 평년보다 더운 엘니뇨 상태에 접어들었으니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더워야 '폭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주의보는 ①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경보는 ①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죠.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는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특보 체제가 공식화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올여름 폭염은 기존의 '역대급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역대 최장 폭염' 타이틀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2018년 여름이 쥐고 있습니다. 그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무려 31일에 달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광주가 43일, 대구는 40일, 서울은 35일을 기록했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이 한 달을 족히 넘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해 충남 금산에선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37일이라는 최장 지속일수 기록이 쓰였고, 더위를 피한다는 '피서지' 중 하나인 부산과 속초조차 각각 18일, 15일에 달했습니다.

'때 이른 폭염'의 징후는 해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5월에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한낮 최고기온이 37°C까지 올랐고, 미국 시애틀에서도 30°C를 넘어서는 곳도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미 4월에 45°C를 넘는 기온이 기록됐죠. 물론, 폭염의 시작이 꼭 빨라야만 '최악의 폭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의 폭염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준, 첫 폭염 일은 7월 15일로 이듬해인 2019년 서울의 첫 폭염일(5월 24일)보다 한 달 반 넘게 늦었죠. 설령, 올여름 폭염이 일찍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예보로 겁주더니 역시나 틀렸구먼!" 하고 비웃었다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1973년 이래로 서울의 최장 폭염일수 상위권은 2000년대의 차지였습니다. 2018년(1위), 2016년(3위), 2000년과 2021년(공동 4위)··· Top 5 중 2000년대가 아닌 해는 1994년(2위) 뿐이었죠. '이상 고온', '이례적인 폭염' 등등 이상(異常)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잦아지는, 이상의 일상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올여름 예보는 어떨까요? 당장의 앞으로 몇 달의 시간, 그날그날 기온이 정확히 "몇 °C까지 기온이 오른다"라는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기상청의 6~8월 장기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은 20%입니다. 이상고온(최저·최고기온의 90 퍼센타일 초과범위) 발생일수 또한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에 달하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인 적응과 감축뿐입니다. 단기적으로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상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부디 올여름은 "아, 엄청 더웠네" 말만 하고서 가을을 맞이하지 않기를, 조금은 덜 더운 오늘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차와 튜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친환경이 일상이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누비고 빗물을 정화해 만든 빗물 맥주를 맛볼 수 있다. 풍차 마을을 거닐고, 옥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의 싱그러운 기운이 마음에 스며든다.

글_우지경(여행작가) 사진 제공_네덜란드 관광청

물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만남 장면들



암스테르담 운하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암스텔 강과 거미줄처럼 얽힌 운하, 미로 같은 골목들로 이루어진 도시다.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이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조성된 운하는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다. 역사적으로 암스테르담 운하는 운송 역할과 동시에 물을 통제하고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인정을 받아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수로 옆에는 운하가옥이 촘촘히 서있고 운하 위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 있어 도시의 풍경을 더욱 서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암스테르담에서 아름다운 전통 운하 가옥을 보려면 헤렌그라흐트 구간인 고덴 보흐트(Gouden Bocht) 또는 골든 커브(Golden Curve)로 가면 된다. 운하 위에 놓인 다리를 감상하고 싶다면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매그레트 다리, 화려함이 매력인 마지크 다리, 17세기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브로이터스룸 다리 등이 있으니 놓치지 말 것.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느끼기 즐기고 싶다면 운하 크루즈를 타면 좋다. 운하 크루즈를 타고 편히 앉아 암스테르담 중앙역부터 안네 프랑크의 집, 국립 미술관 등의 도시의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 타고 암스테르담 한 바퀴

운하 크루즈보다 암스테르담 골목 탐험을 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바로 자전거다. 출근길에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탄 부모,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암스테르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암스테르담이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적극 도입한 덕분이다. 암스테르담의 공유 전기자전거 수는 1,400대에 이른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물론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으며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 그 덕에 여행자들도 자전거를 빌려 도시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다. 교통량에 맞춰 신호체계를 제어해 신호대기를 최소화하는 그린 웨이브 시스템은 트램, 자동차, 자전거가 한곳으로 모여드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들어 준다.



튤립의 나라, 싱혈 꽃 시장

네덜란드는 전 세계 튤립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최대 꽃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바로 꽃 시장이다. 그중 싱혈 꽃 시장은 19세기 암스테르담 근교 화훼업자들이 싱혈 운하를 따라 배로 모종을 운반하며 형성된 유서 깊은 곳이다. 운하 옆 싱그러운 꽃향기로 뒤덮인 꽃 시장에는 형형색색의 튤립은 물론 해바라기, 작약 등 다양한 생화와 말린 꽃을 판매한다. 생화 외에도 가게마다 양파처럼 생긴 구근을 박스에 가득 담아 파는 것이 이색적인 볼거리다. 알뿌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피는 꽃은 모두 다르다.



맥주의 나라에서 만든 빗물 맥주

네덜란드는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의 본고장이다. 네덜란드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시원한 하이네켄 한 잔은 물론 옛 양조장 건물 안에 자리한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투어를 추천한다. 투어에 참여하면 하이네켄의 역사, 제조 과정을 살펴본 후 시음을 할 수 있다. 좀 더 특별한 맥주를 맛보고 싶다면 레인비어(Rainbeer)를 마셔보자. 자연과 물 관리에 관심이 큰 나라답게 도시 곳곳에 설치한 빗물 수집 장치에서 특수 필터로 정화한 빗물로 맥주를 만들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다.





동화 같은 풍차마을 잔세스칸스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네덜란드 특유의 목가적인 이미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 잔세스칸스(Zaanse Schans)에 도착한다. 크고 작은 풍차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풍차마을로, 18세기에는 700개가 넘는 풍차가 존재했다. 풍차 외에도 잔스 박물관, 치즈 공장, 나막신 공장이 있어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잔스 박물관에서는 풍차의 원리와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2층 전망대에서는 파노라마 뷰로 마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고소한 냄새를 솔솔 풍기는 치즈 공장에서는 치즈와 우유를 맛볼 수 있고, 나막신 공장에서는 나막신 제조 공정 관람과 알록달록한 색의 나막신도 구매할 수도 있다.



현대 건축의 도시 로테르담

항구도시 로테르담에선 맛있는 건축을 찾아보기 힘들다. 연필을 닮은 펜슬 빌딩(Pencil Building), 큐브 하우스 중앙역부터 시작해, 도시 전체가 현대 건축 박물관도 같다. 거대한 아치 형태 건물 안에 시장과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마켓홀 또한 로테르담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네덜란드는 붉은색 지붕이 대표적인 유럽의 건축물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건물에 평평한 옥상이 많다. 이 점에 착안해 옥상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다카커(Dakakker)라 불리는 옥상 정원이 생겨났다. 옥상에서는 채소, 과일, 허브를 키운다. 꽃이 피는 허브로 만든 꽃밭 옥상은 꿀벌이 꽃밭을 누비는 풍경을 연출한다. 그 덕에 로테르담의 옥상 정원에서는 자연 속에 머물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오묘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산으로 강으로 떠날 때다.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필수! 물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조정 국가대표가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글. 김정주 사진. 김정호

K-water 조정선수단 김병진 선수가 알려주는 여름철 물놀이 스트레칭

2021년 전국조정선수권대회 2관왕, 김병진 선수

K-water 조정선수단 김병진 선수는 햇수로 벌써 12년째 가장 오랜 시간 팀을 지켜온 장본인이다. 풋풋한 막내 시절부터 든든한 선배가 되기까지 수많은 경기에 출전, 화려한 수상 이력을 쌓으며 든든한 기동 역할을 도맡고 있다. 그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시는 K-water 조정선수단의 시스템이 만족스럽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지원과 관심에 선수들 또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나 더, 적게는 스무 살부터 서른일곱 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팀 내 분위기도 장점 중 하나다.

선수단은 올해도 전국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상반기에 진행된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처럼, 하반기의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비롯한 상위 입상을 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병진 선수는 독자들에게 올여름 액티비티로 ‘조정 체험’을 제안했다. “지역마다 조정 체험 학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초보여도 누구든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조정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물놀이 전 찌 스트레칭!

날마다 물 위에서 훈련하는 조정선수인 만큼 특별히 독자들을 위해 '물놀이 전 알아두어야 할 찌 스트레칭'을 준비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긴장감 없이 동작을 따라 할 경우 근육과 인대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강도로 시행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에 신경 쓰며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빠른 허리를 풀어주는 장요근 스트레칭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한쪽 무릎만 세운 후 손은 깎지 낀 자세로 머리를 받쳐 줍니다. 세운 무릎 쪽으로 몸통을 숙인 후 쪽 몸을 늘린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2 엉덩이 통증 잡는 대둔근 스트레칭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접고 그 위에 반대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시선은 단전을 향합니다. 두 손은 양 허리 쪽 땅을 짚고 그 상태로 고개를 단전 방향으로 숙였다 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3 유연성 up! 개구리 스트레칭

무릎을 어깨너비보다 더 넓게 꿇은 채 팔꿈치를 구부려 상체를 숙입니다. 이때 들려있는 엉덩이를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4 두 배 효과적인 햄스트링 늘리기

일어선 상태에서 두 발을 교차하여 완전히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이 뜨지 않게 상체를 천천히 접으며 두 팔을 땅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5 온 국민이 좋아하는 PT 체조

뛰면서 양팔을 벌렸다가 다시 접는 동작입니다. 최소 5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최고! K-water 조정선수단을 소개합니다



내외 대회에 출전, 상위 입상을 놓치지 않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팀이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조정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K-water 조정선수단은 2002년 창단 후 꾸준히 국



QR코드를 스캔하면 '여름철 물놀이 스트레칭'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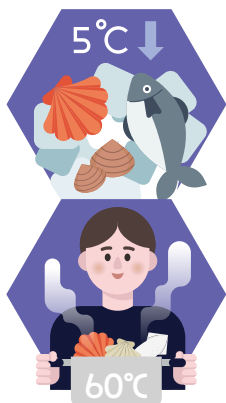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여름철 질병들. 특히 이 시기에 노출되기 쉬운 비브리오 패혈증은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감염병이다. 하지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몇 가지 예방법만 잘 숙지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의 A to Z를 낱알이 파헤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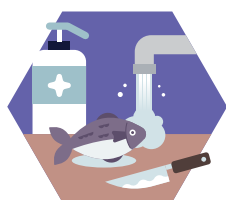
글_김정주 출처_서울아산병원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해산물은 -5°C 이하로 저온 보관,
60°C 이상의 열로 익힌 뒤 섭취하기



#해산물을 조리한 도마와 칼은
소독 후에 사용하기



#신체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기(꺾별 포함)



#경미한 증상이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 가기
(감염내과/응급의학과)

치사율 50%! 비브리오 패혈증을 아시나요?

수온이 상승하여 해수면이 따뜻해지는 6~9월.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때지만, 비브리오 패혈증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것도 이 시기다. 국내 기준으로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채취된 것은 5월이었으며, 이로 인한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브리오 패혈증의 검출 시기가 일주일씩 빨라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염분이 높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바닷속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며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가 피부의 상처에 노출될 때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될 경우 약 16~24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발현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배탈이나 식중독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을 받기 전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할 경우 부종, 반상 출혈, 수포, 괴양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병할 수 있다. 심지어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한 사망률은 40~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간질환, 알코올 중독,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비브리오 패혈증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 괴사, 패혈성 쇼크 등 위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은 여름철 동안만큼은 해산물 섭취를 금하고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지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몇 가지 내용만큼은 숙지해 두길 바란다.

첫 번째, 해산물은 반드시 저온 보관한다. -5°C 이하에서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60°C 이상의 열로 가열하여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해야 안전하다.

두 번째, 해산물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도마, 칼 등 조리도구를 꼼꼼하게 소독한다. 사용 전후로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해산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위생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 번째, 신체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바닷물에 상처 부위를 접촉했다면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된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상 발견 시 신속히 병원에 내원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증상이 시작되면 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재빠르게 내원하여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힘찬 여름을 응원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로맨틱 버스킹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K-water 천안권지사는 천안시·아산시·세종시에 하루 110만 7천m³ 용수를 공급하며 중부 물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막중한 책임만큼 빈틈없이 일하느라 바쁜 K-water 천안권지사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水)타박스가 간다'가 떴다! 시원하고 다양한 음료에 달콤한 음악이 더해져, 무더운 여름의 단비 같았던 6월의 어느 하루 이야기를 전한다.

글_구지희 사진_김정호 영상_박지수



천안권지사의 Net-zero(탄소중립) 정수장

수(水)타벅스가 도착한 K-water 천안권지사는 천안시·아산시·세종시 상수도 공급, 광역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천안시 공공용 수도시설 수탁운영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정수장은 대청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처리시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인 K-water의 대표 지사답게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점도 눈길을 끈다. 천안권지사에서는 침전지·정수지 위와 유티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한 해 약 3,575MWh에 달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정수장에서 소비되는 전력(2,956MWh/년)보다도 많은 양으로, 원유 4,900배럴의 소비를 대체하고 이산화탄소를 1,574tCO₂ 가량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천안권지사는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상수도에서는 누수나 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2019년 기준 약 6,61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사업으로 유수율 70% 미만인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유지·보수해서 85%로 높이는 것이 천안권지사의 목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약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천안권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수(水)타벅스를 반갑게 맞이한 수도운영부 오은 부장은 “정수장 규모나 사업 범위에 비해 인원

은 58명으로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열외 없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죠. 천안권지사가 어느 지사보다 행복한 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함께 웃음꽃 피운 6월의 오후

이번 수(水)타벅스는 천안현대화사업팀 전채연 사원이 각자 분야에서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신청했다. “천안권지사는 국가 보안시설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만큼 소속, 직렬, 직급과 관계없이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근무자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든 근무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바람대로 이번 ‘수(水)타벅스가 간다’ 캠페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수도운영부 수질관리과 심혜진 과장도 천안권지사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했다. “이곳 천안권지사는 시내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카페에 갈 때면 차를 타고 다같이 이동하죠. 근처에 마치아 지트처럼 직원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안권지사 편 보러가기](#)

일상 속 활기를 더하는 수(水)타벅스 이벤트

K-water 천안권지사에 커피차가 도착하자 색색의 텀블러를 들고 줄을 선 직원들이 앞마당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다. “커피차라고 하면 연예인이 받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게다가 매일 근무하는 익숙한 풍경에서 이토록 특별한 행사가 열리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이렇게 응원을 받으니깐 우리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도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몸이 축 처지는데, 시원한 음료 한 잔에 힘이 났습니다. 커피도 에이드도 모두 맛있었어요!” 즐거워하며 각자 소감을 전하는 임직원들의 미소가 밝게만 느껴졌다.

이번 수(水)타벅스에는 특별히 야외 버스킹 공연팀이 함께했다. 각자 음료를 들고 옹기종기 어깨를 맞댄 채 로맨틱한 노래에 귀 기울이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며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있으니깐 꼭 외국에 나온 듯하네요. 일상에 지칠 때 활력이 되는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모든 부서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앵콜!”이 터져 나왔을 때 즈음, 마치 하이라이트 무대를 꾸미듯 여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름을 적시는 단비였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한껏 시원해진 직원들. 이벤트를 뒤로 하고 다시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더욱 활기차 보였다.

message.

애쓰는 우리 직원 모두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며
시원하게 여름을 시작하고 싶어요!



전채연 사원

천안권지사

전기, 토목, 통신뿐만 아니라 제어실 근무자부터 청원경찰분들까지... 업무는 가지각색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덕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카페나 편의시설이 다소 먼 편인데요. 이번 기회로 한자리에 모여 커피 한 잔 나누며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K-water는 증가하는 물 수요와 글로벌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용수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물을 재이용하는 대체수자원은 순환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 김영은 출처. K-water

순환경제를 이끄는 K-water의 미래수자원



반영구적이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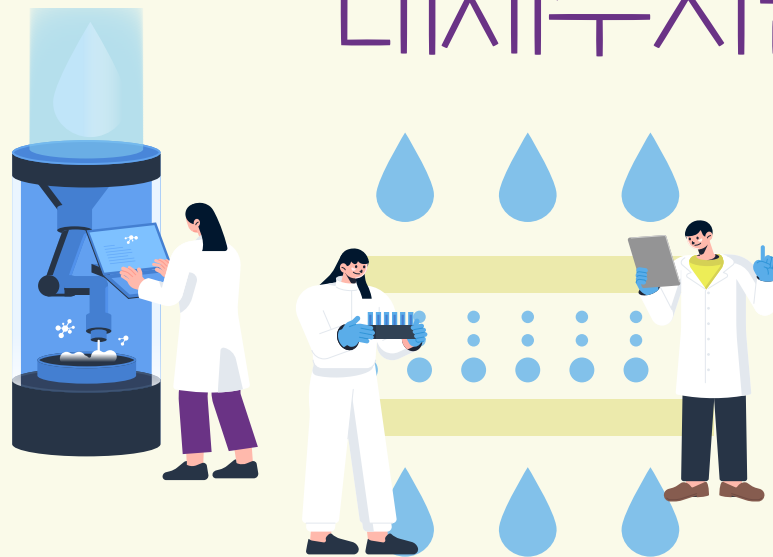
2,851

억 원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비

K-water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증가하는 물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미래를 이끌 대표적인 대체수자원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온배수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등이 있다. 이중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을 활용해 염분 등의 용해 물질을 제거한 뒤 민물로 만들어 활용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반영구적이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K-water는 지난 2020년부터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총 사업비 2,851억 원을 들여 하루 10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2024년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는 K-water의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력



137,000 톤/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3개소 용수의 총 공급량

25 개

도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K-water는 충남 아산, 경북 칠곡, 경북 포항 3개소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하루 13만 7천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K-water는 도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25개소를 수탁 운영 중이며, 3개소의 지하수저류댐을 설치 완료했다. K-water는 이와 같은 역량으로 지난 2021년, 하루 5만 톤 규모의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체결해 오는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가 버려질 수 있는 온배수*를 정수한 다음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산업단지의 생산공정 중 발생한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사용된 냉각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



대체수자원 활용

K-water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재이용 등
의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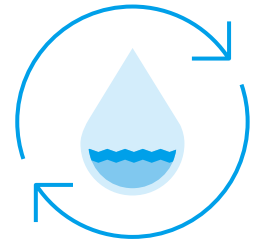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급속한 산업 발전과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는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물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ater가 대체수자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다.

글_김영은 출처_K-water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으로 대체수자원 개발, 물부족 해결에 앞장섭니다



물 부족에 대처하는 세계의 움직임

지난 수년간 증가해 온 물 수요와 관련된 여러 동향을 보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눈에 띄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해 온 산업 발전과 세계 인구의 증가, 가뭄 및 홍수와 같은 이상 기후는 세계 물 소비량을 매년 1%씩 증가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규모 수자원 개발의 어려움은 저수지 퇴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댐 용수공급 능력에 지속적인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네스코는 2050년까지 이와 같은 전망이 지속될 것이라 예견하며, 이는 곧 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UN은 세계적인 물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물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물 저장소(Water Storage)



천안 아산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도 해수담수화와 하수재이용 등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보공시

는 물론 환경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물 저장소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 M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물 자원의 재이용은 물론 대체수원 확보 및 용수 소비를 최소



1. 대산임해해수담수화 플랜트 조감도
2.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현장
3.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취수시설 준설작업

화하고 공급망 전망에 걸쳐 물관리에 각 별히 신경을 쓰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고민

대한민국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국토의 약 63%가 산악지형이며 하천의 경사가 급해 일시에 빗물이 유출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또한 갈수기인 겨울과 봄에는 가용수량이 적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용 수자원량이 풍족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편함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 및 K-water의 수자원 개발과 상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자원 이용량이 댐과 하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댐 관리를 고도화하고 물 공급 인프

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많은 양의 용수를 필요로 하기에 대체수자원을 통한 지속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체수자원을 통한 물 공급은 강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기존의 댐 및 하천 중심의 용수 공급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미래수자원의 국가대표 4인방

대표적인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첫 번째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하수 발생량 대비 재이용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

세이며, K-water는 아산, 칠곡, 포항 등의 3개소에서 하루 13만 7천 톤 규모의 재이용시설을 운영하며 공영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5만 톤 규모의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착공해 2025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하수재이용수 활성화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물 소비량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해수담수화가 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등 용해 물질을 제거한 뒤 민물로 만들어 각종 용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K-water는 수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던 대산임해산업지역에 2020년부터 해수담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은 산업용 용수 공급을 위한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정수장으로서

2024년까지 준공 후, 하루 10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방안은 바로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해수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산입해산업지역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수담수화 외에도 하루 13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K-water의 대안이 바로 온배수재이용이다. 온배수란, 산업단지의 생산 공정 중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물을 정수해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온배수재이용은 안정적인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온도를 이용해 운영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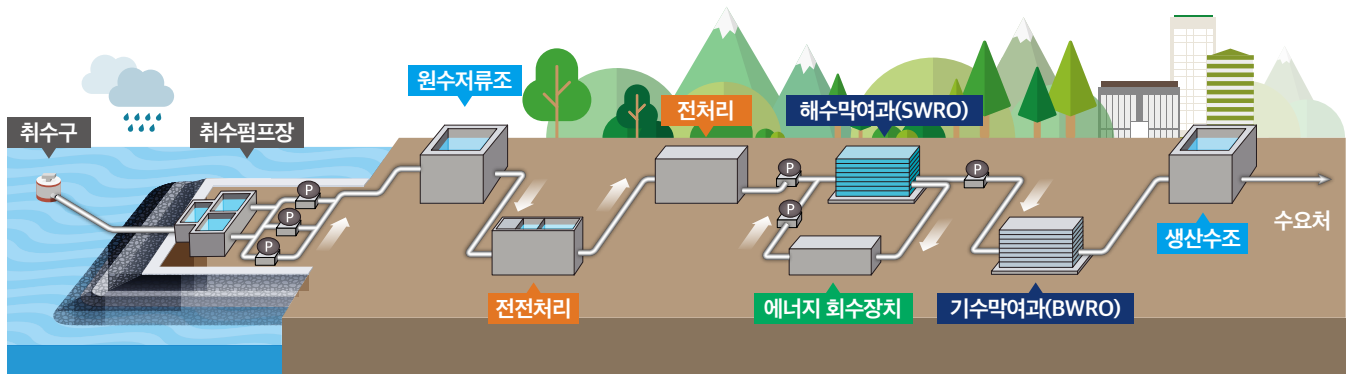
업단지 내에서 생산과 공급을 겸할 수 있기에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K-water의 다양한 대체수자원은 자칫 버려질 수 있는 물을 재이용해 해양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용수 공급 외에도 친환경적인 대체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저류댐 또한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 모래·자갈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상습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과 내륙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공급해준다.

K-water에서는 웅진군 대이작도와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보길도 등 원할한 수자원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땅속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여 가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온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을 지난해 12월 26일 조기 통수를 시작하였으며, 총 15만 7천 톤의 용수를 기존 상수원인 보길저수지로 공급하여 8,000여 명 주민의 '가뭄 극복 해결사'임을 입증했다.

K-water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하수 저류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산입해 해수담수화 수처리 공정



<p>취수탑</p> <p>간극 : 140mm 후속 스크린 보호</p> <p>조목스크린</p> <p>간극 : 50mm 플라스틱 및 해파리 제거</p> <p>세목스크린</p> <p>간극 : 5mm 해초류 및 오물 제거</p>	<p>전전처리(DAF)</p> <p>용존공기부상(DAF) - 미세기포 활용한 부유물질 제거 - 저농도부유고형물, 조류, 오일을 효과적으로 제거</p>	<p>전처리(DMGF)</p> <p>중력식다층여과지(DMGF) - 다층여재를 통한 입자성 물질 제거 - 전전처리수를 안트라사이트와 모래 등에 중력식으로 통과</p>	<p>에너지 회수장치</p> <p>에너지 회수장치 - 세라믹 로터를 회전시켜 RO설비를 통과한 압력을 회수 후 재사용 - 유입펌프 전력량 저감 효과</p>	<p>해수막여과(SWRO)</p> <p>SWRO(Sea-water RO) - 저에너지형 역삼투압막 - TDS* 100ppm이하로 염분 제거 - 원수 회수율 49%</p>	<p>기수막여과(BWRO)</p> <p>BWRO(Brackish-water RO) - SWRO 설비와 유사 - TDS 30ppm 이하까지 염분 제거 - 염분 및 이온성 물질 제거</p>
--	--	--	---	---	--

*TDS: 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 고형량



ESG 경영으로 다시 태어난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 전경

K-water의 적극행정이 펼친 놀라운 변화

서울, 김포, 인천을 거쳐 흘러가는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뱃길로 오랜 역사와 국민의 정서가 담긴 문화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여객 운항이 중단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자, 인천여객터미널(해양수산부 보유) 내의 임대시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마침 인천지역 청년들은 창업·예술 활동 공간이 부족해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되어 왔었던 터라, K-water는 이러한 점점에 착안해 인천여객터미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실이었던 여객터미널의 임대시설을 청년 창업자 및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공실에는 새로운 역할을, 청년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국유재산법상 국가 시설 임대 시에는 사용료 징수가 원칙이라 무료 임대가 불가능했으나, K-water는 한 발 더 나아가 청년들이 임대공간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제안했다. 제도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무료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예술 활용 공간이 공익목적임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를 설득했고, 결국 K-water는 최대 4년간의 무상임대 승인을 받아냈다.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이 K-water의 지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난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의 스토리에 주목해 보자.

글_김영은 출처_K-water

청년 예술가를 품는 인큐베이터

K-water의 노력 끝에 마침내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 임대시설은 리모델링을 거쳐 총 9개 팀이 입주해 청년들의 창업·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곳으로 재탄생했다. 아라뱃길 청년 창업·예술 공간은 단순한 임대공간을 넘어 입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업 컨설팅이나 예술가 멘토링 프로그램, 관객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문화 예술 종합지원 플랫폼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1. 사무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 청년 창업·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실로 탈바꿈했다.



온술 | 박은미 대표

작년 4월에 아라뱃길 청년 창업·예술 공간에 입주했습니다. 이렇게 풍경 좋은 사무실은 처음이라 늘 힐링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청년창업을 지지해 주시는 K-water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바디미스트 브랜드



플라이트 | 이동근 대표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은 스타트업 업무에 필요한 각종 가구와 인쇄기 등이 구비되어 완벽한 근무여건을 자랑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K-water에서 시설 관리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시고 덕분에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등 판매 업체





한낮의 태양은 열기를 더하고 시원한 바다에 푹푹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정에 이를 때쯤. K-water 물환경처의 네 남자가 여름 액티비티의 신호탄을 알리는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했다.

글. 박향아 사진. 김정호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가장 시원한 방법 스쿠버다이빙 체험



좋은 것은 좋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법

아름다운 산호초 사이를 오색빛깔 물고기가 살랑살랑 지느러미를 흔들며 노니는 바닷속 세상, 그 안으로 뛰어들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감동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정재성 대리가 <어느 멋진 날>을 신청한 사연이다.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푸켓에서 스쿠버다이빙 보조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느낀 멋진 바닷속 세상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꼈죠. <어느 멋진 날> 스쿠버다이빙 체험 공지가 올라왔을 때, ‘우리 팀 직원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원래 좋은 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법이잖아요.”

정재성 대리의 요청에 기꺼이 ‘OK’를 외친 박현오 부장은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오늘 함께 한 직원들

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시작했다.

“정재성 대리는 업무를 할 때는 정확하고 꼼꼼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처럼 팀원을 하나로 아우를 줄 아는 리더십도 있고요. 성준규 대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는 3차원적인 ‘엉뚱미’가 있어 특유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죠. 작년에 입사한 김범진 사원은 막내답게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직원이에요. 선배들을 보며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마냥 뿌듯합니다.”

진심을 담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박현오 부장 역시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닳고 싶은 최고의 리더”라는 세 직원의 표현처럼, 멋진 리더임이 틀림없다. “우리도 회사 밖에서 부장님 이랑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직원들의 얘기에서 진심이 오롯이 느껴지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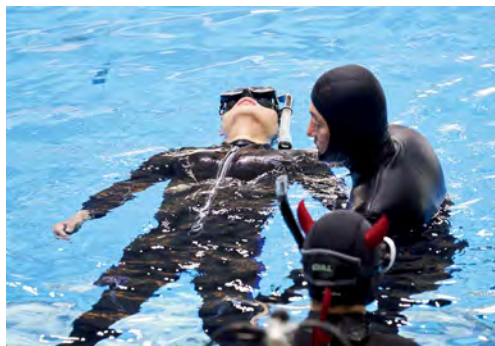


정재성대리

박현오부장

김범진사원

성준규대리



다 같이~ 숨 참고 다이브!

대전에 위치한 실내 스쿠버다이빙 풀장에 모인 네 명의 남자. 베테랑 정재성 대리, 여행에서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해 본 박현오 부장과 달리, “수영조차도 못 한다”는 성준규 대리와 김범진 사원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회식 때마다 정재성 대리에게 들었던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지만, ‘어린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던 물에 대한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니 망설임도 적지 않았다고. “그래도 정재성 대리가 함께하니까, 뭐 우리가 빠지면 구해주지 않겠어요?(웃음)” 동료에 대한 믿음은 두 사람이 생애 첫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할 시간. 전문 강사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후 ‘스노클링’을 시작으로 물과 친해지는 연습을 시작했다. 스노클링은 물속 깊이 들어가는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스노클의 대롱을 통해 호흡하면서 수면 근처에서 짧게 다이빙을 즐기는 방식이다. 대롱을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함께 들어온 물을 빼내는 요령이 중요한데, 유경험자는 물론 첫 경

험인 성준규 대리와 김범진 사원은 금세 적응해 성공해 냈다. 이제 제법 물과 친해졌으니, 깊은 물속을 탐험해 볼 차례. 수중 마스크와 오리발, 부력조절기, 공기탱크까지 장비를 착용하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장비를 착용하면 그 무게가 30kg 가까이 되다 보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팀워크일 것. 능숙하게 장비 착용을 마친 정재성 대리를 필두로 서로를 살뜰하게 살피며 장비 착용 완료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숨 참고 다이브!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길 것

스쿠버다이빙은 물 위에 뜨기 위해서가 아닌, 가라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독특한 수상스포츠다. ‘잘 가라앉기 위해’ 제법 무게가 나가는 ‘납’을 줄줄이 엮은 벨트까지 착용했는데도 왜 자꾸 똥똥 뜨기만 하는지... “사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질까 봐 걱정했는데, 체험을 해보니 물에 못 빠질까 봐 걱정”이라는 김범진 사원의 웃지 못할 이야기에, 강사님의 특급 처방이 이어진다.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길 것.’ 그렇게 김범진 사원도, 다른 직원들도 조금씩 물속 세상으로 빠져들어 갔다. 비록 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산호도 오색빛깔 물고기도 없지만, 물위의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에 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대로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니,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푸른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움이 원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정재성 대리가 왜 그렇게 스쿠버다이빙을 추천했는지 알 것 같다”는 성준규 대리. “실내 풀장에서 좀 더 실력을 쌓아서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탐험해 보고 싶다”는 성준규 대리의 제안에, 김범진 사원도 “물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바닷속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면서 적극 동의했다.

이런 반응이 가장 뿌듯하고 반가운 것은 오늘 체험을 제안한 정재성 대리다. “오랜만에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어 재미있는 것은 물론이고, 팀원들이 물속 세상의 매력을 알고 마음껏 즐긴 것 같아서 행복하다”는 얘기에서 진심이 오롯이 느껴진다.

물환경처는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상반기를 보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는 박현오 부장.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벗어나서 시원한 물속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가 심표가 되어, 하반기에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만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멋진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꼭 더 깊은 바닷속 세상을 함께 탐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깊이 빠져들게 되는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처럼,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된 네 남자의 하루. 더 깊은 바닷속 세상을 함께 탐험할 날도 기대해 본다.



박현오 부장

사무실에서만 보던 직원들과 뜻밖의 체험 덕분에 잠시나마 형, 동생 사이처럼 막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에 저항하려 하지 말고 몸을 맡기라’는 강사님의 조언을 따르다 보니, 어느새 물 안에서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생마사의 지혜를 실제로 경험한 것일까요?

성준규 대리

물속에 잠수하는 것이 생전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 직접 해보니 신기하고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물속에 있다 보니 언어적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니까요(웃음) 체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재성 대리

스쿠버다이빙을 처음 해보는 직원도 있었지만, 역시 K-water 직원답게 물과 함께하며 호흡하고 유명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동료들과 충분히 가까웠지만 이번을 계기로 동료 이상으로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추억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진 사원

좋아하는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생애 첫 스쿠버다이빙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새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K-water가 자랑스러워지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몸이 무겁고, 세상만사가 모두 귀찮을 때, 현대인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특히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고 지칠 수 있다. 출퇴근하면서, 근무 시간에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도, 때로는 주말에도 쳐져 있기가 쉬운 계절이 시작됐다.

글_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여름철 무기력증



66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먼저 수면,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99

무기력증은 만성피로나 번아웃 증후군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업무 집중도 하락과 매사가 귀찮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일단 무기력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기력한 기분이나 피로함은 우울증의 증상 중 일부이며 더욱 골이 깊어져 우울증으로 진행되면 불면이나 체중 감소, 식욕저하도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과다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식품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 경우는 물론 새벽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늦게 잠드는 경우,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무리하게 일을 계속 해왔을 때 또는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평소와 생체리듬에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 만성피로와 유사한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름철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리듬을
 유지하면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꾸준히 할 것.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먼저 수면,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잠에 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끼니를 때우는 느낌이 아니라 최소 두 끼 미만이라도 균형 잡힌 영양소의 식단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업무 모드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보자.

할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업무 관련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휴식이나 재충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출근할 때도 여전히 지치고 피로한 느낌이 묵직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럴 때에는 업무 모드에 온/오프 스위치를 만들어 볼 것. 마치 출근해서 컴퓨터 전원을 켜고, 퇴근할 때 전원을 끄는 것처럼 일과 휴식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온/오프가 적절히 유지된다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라.

하루 종일 두뇌를 풀가동한 상태에서는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이 들기 마련. 그럴 때 일수록 산책이나 자전거, 요가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어 몸이 이완되지 않고 숙면을 못 하게 되기 때문. 퇴근 이후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숙면은 곧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함께 용기내요! 비닐 OFF

무심코 사용했던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사실!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다회용품을 사용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글. 김영은

비닐봉지 OFF!

가볍고 편리해 무심코 사용했던 비닐봉지. 그러나 비닐봉지가 완전히 분해하는 데까지 100~50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폐비닐봉지를 땅에 묻으면 오랜 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 토양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매년 5조 개 가까이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매년 10만 마리의 해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약 9장의 비닐봉지를 제조하려면 자동차를 1km 운전할 때 드는 에너지가 소비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2008년 7월 3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입니다. 본 캠페인은 스페인의 국제 환경단체인 '가이아'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할 때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실제 사용을 줄이면서 점차 지속가능한 약속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날을 통해서 단 하루 만이라도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또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 에코백 등의 다회용기를 사용해 보세요. 폴리에스테르 접이식 장바구니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 더욱 유용합니다. 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종이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 등에서 과일과 야채를 살 때에도 무심코 비닐봉지에 담아 무게를 재기보다는 음식물 표면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도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닐봉지 OFF!



*상품 랜덤 발송

비닐봉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63페이지에 있는 **방울이 토퍼를 이용한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접이식 휴대용 장바구니**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접이식 휴대용 장바구니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이미지 전송

접수 마감일 7월 25일 **선물 발송일** 8월 15일경

※ 8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트래블테크

최근 스타트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진 트래블테크(Traveltech).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무장해 여행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트래블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영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관련한 숙소 예약, 여행지 정보 검색 등이 잦아지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여행 관련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트래블테크(Traveltech)다. 트래블테크란, 여행(Trave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단어로, 여행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 여행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여행자들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과 숙소, 교통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여행자들은 몇 번의 클릭으로 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받고 보다 손쉽게 원하는 정보와 닿을 수 있는

데, 우리가 흔히 항공권, 호텔, 렌터카 등의 가격과 옵션 등을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래블테크 시스템 덕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수하물 분실이나 항공편 지연과 같은 난해한 문제에 있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고, 운영 간소화로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최근 국내 여행 플랫폼 기업 중 마이리얼트립은 챗GPT를 활용한 AI 여행플래너를 출시해 트래블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트래블테크는 여행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여행산업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 시장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트래블테크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



마이리얼트립

챗GPT를 활용해 검색 대화 기능을 탑재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클룩

테마파크부터 다양한 콘셉트의 투어 등 액티비티 티켓 최저가를 제공한다.



아놀자

숙박 예약 시스템에 AI, IoT, VR 등의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트리플

여행자의 동선에 따라 맛집을 추천하는 등 맞춤 정보가 나타난다.



FOCUS

윤석대 K-water 사장, 홍수 대응 태세 종합 점검으로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다

물관리 최북단 군남댐 현장 방문

K-water 윤석대 신임 사장이 지난 6월 26일,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해 홍수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글. 김영은 사진. K-water



홍수기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대 신임 사장

지난 6월 26일, K-water 윤석대 신임 사장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을 방문했다. 하루 전인 6월 25일부터 전국적인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대비한 군남댐의 홍수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 발걸음이었다. 홍수기가 성큼 다가온 지금,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취임 후 첫 발걸음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남북공유하천에 위치한 군남댐은 남북의 접경 지역 홍수를 방어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자체 대응력과 철저한 물안보 준비태세를 통한 남북공유하천의 물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K-water의 군남댐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류 여부를 먼저 감지할 수 있도록 댐 상류 11km 지점의 필승교 수위국에서 24시간 동안 하천의 수위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북측의 댐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철저한 댐 운영과 물관리를 통해 국민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

윤석대 사장은 이날 접경지역 홍수기 댐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또한, 휴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군 전방대인 태풍전망대와 임진강 남측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국을 방문하여 접경지역의 현장 전반을 살펴보았다. 현장을 살펴본 윤석대 사장은 “임진강의 군남댐은 휴전선 남쪽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중요시설”이라며, “국민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철저한 댐 운영과 물관리를 통해 홍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ter News

1



K-water,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난 6월 14일 K-water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질오염·식용수 사고로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복합재난 상황에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어 인근 대청취수장, 청주정수장 가동이 중지되거나 낙뢰로 인한 현도취수장 설비 파손 등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으며, 국민체험단이 함께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K-water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물 관련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를 철저히 검토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K-water, 2023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가

지난 6월 7일, K-water가 서울특별시 COEX에서 개최된 환경 산업 분야 전시회 '2023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에 참석했다. 행사의 공동 주최기관인 K-water는 물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제도 홍보 부스, 지원 중소기업 전시관, 구매상담회, 물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 자리를 빛냈다. 물산업혁신처에서 운영한 K-water 홍보관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물산업 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했으며, '환경부 2023년 물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3



K-water 송산그린시티 전망대 개관 10주년 맞이 재개관

지난 6월 1일, K-water 송산그린시티 전망대가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 했다. 전망대는 지하 1층~지상 3층(높이 40m, 해발 100m)의 규모로, 지난 2013년에 개관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K-water 송산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휴관기간을 운영하면서 전망실의 유리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해 송산그린시티를 비롯한 사회호 주변 지역의 조망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K-water가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 조성 사업은 송산면 일원에 오는 2030년까지 1,683만 평(55.63km²)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관한 송산그린시티 전망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개방된다.

4



K-water, 우크라이나와 재건 협력 방안 논의

지난 6월 14일, 우크라이나 재건부 바실 슈크라코브 1차관이 부산에코델타시티 현장을 방문해 K-water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의 바실 슈크라코브 차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구역을 둘러 보며 웰니스센터, AI체육센터, 스마트 홈 등 최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K-water는 그간 시행해온 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5



K-water,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위한 시설 점검

지난 6월 15일, K-water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용수 공급 시설 점검에 나섰다. K-water 정경윤 부사장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릴 예정인 새만금 지역에 방문해 용수 공급사업 추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잼버리 조직 위원회 등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말 착공해 6월 초 완료된 용수 공급 시설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시설인 만큼, 대회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통수 등의 마무리 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6



K-water, 녹조 저감에 총력 지원

K-water는 여름철 녹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녹조 저감 및 녹조 발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녹조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고온으로 대량증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협업 중이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설비 등을 활용해 녹조 제거 및 녹조 발생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K-water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여름철 녹조 관리를 위한 예방부터 대책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근원적인 물 환경 개선사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

바비

감독 | 그레타 거윅
개봉 | 7월 21일

©네이버 영화

장난감 회사 '마텔'의 바비인형을 실사화해 세계관을 입혀 만든 영화 <바비>.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바비랜드에 살던 주인공 바비가 현실 세계와 이어진 포털의 균열로 인해 켄과 함께 예기치 못한 여정을 떠나면서 다양한 모험이 펼쳐진다.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 7월 29일~8월 6일
장소 |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



탐진강의 맑은 물과 장흥댐 호수 등 수자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물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물 과학 체험관, 카누, 워터밤, 수영장 등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기에 충분하다.

**이 여름
주목할 만한
수놓은
문화 속으로**

축제의 계절, 여름.
다채로운 7월을 만들어줄
즐길 거리들을 소개한다.

글 김영은

뮤지컬

멤피스

기간 | 7월 20일~10월 22일
장소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쥐쇼노트

전설적인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멤피스'가 한국에서 초연을 선보인다. 뮤지컬 '멤피스'는 2009년 브로드웨이 첫 공연 이후 2010년 토니 어워즈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화려한 춤과 음악 등 볼거리가 넘친다.

전시

조명치 해양문화특별전

기간 | 8월 15일까지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한 조기, 명태, 멸치의 어획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부터 과거에 사용했던 해먹 등 오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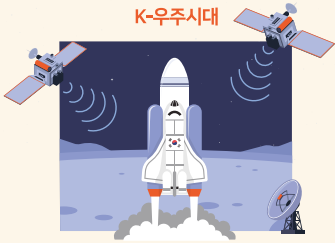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해결, 新성장 4.0 15대 프로젝트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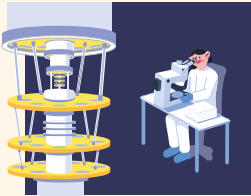
교통체증 無, 운전피로 無
어디든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우리의 기술로 여는
K-우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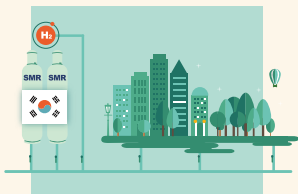
꿈의 **양자기술!**
미세암 발견, 해킹 원천 차단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원자로**
깨끗한 수소 **신재생 에너지**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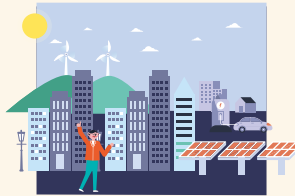
내 삶 속의 **디지털 신기술**,
모두가 평온한 Digital life



차세대 물류 시스템으로
어디든 신선하고 빠르게



넷제로 지구의 시작,
탄소중립도시



농어업 스마트 대전환으로
맛도 영양도 UP!



똑똑한 전력망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新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No.1 코리아** 달성,
30년 미래먹거리 확보



바이오 혁신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K-컬처 융합으로
전국을 관광명소로



전세계인을 사로잡는 **K-콘텐츠**



원팀 코리아를 통한
빅딜 수주 릴레이



2023



물 문제 해결을 위한 waterRound 참여기업 모집

waterRound는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솔루션을
빠르고 쉽게 개발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

구분

협약파트너사(2기)

일반파트너사

공모기간

2023. 6. 27. (화) ~ 7. 21.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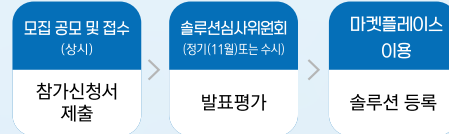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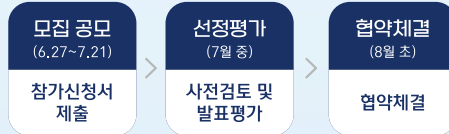
상시접수

참가자격

waterRound 플랫폼을 활용하여 물-에너지-도시 넥서스의
혁신 디지털 솔루션(SaaS)을 신규 개발하여 서비스할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예비창업자는 공모서류 제출 전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솔루션을
waterRound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여
유통·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선발일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솔루션심사위원회 상정하여 기업 등록 실시

지원사항

- ▶ 전문가 컨설팅(아이디어 사업화)
- ▶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Naver 또는 AWS) 지원
- ▶ 솔루션 관련 물데이터 제공·협력
- ▶ 클라우드, SaaS 등 기술지원 컨설팅
- ▶ 디지털, 클라우드 등 전문가 교육 지원
- ▶ 공통기능(라이선스 관리 등) 지원
- ▶ 솔루션 홍보 및 마켓플레이스 이용
- ▶ 국내외 전시회 동반참여 협력

- ▶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AWS) 지원
- ▶ 솔루션 관련 물데이터 제공·협력
- ▶ 클라우드, SaaS 등 기술지원 컨설팅
- ▶ 디지털, 클라우드 등 전문가 교육 지원
- ▶ 공통기능(라이선스 관리 등) 지원
- ▶ 솔루션 홍보 및 마켓플레이스 이용
- ▶ 국내외 전시회 동반참여 협력

접수방법

waterRound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접수 : waterRound 홈페이지 - 참여기업 - 참여기업 공고/모집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로 실시(발표 10분 내외)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참여기업 소개자료 1부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 자료는 별도 연락



DRAW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or.kr/KOR



YOUR



깨끗한 물
 물만 깨끗이 채우고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도주할 수 없다.

A cup of water
 If we don't have a glass of water
 and not everyone can't use
 the long bill paid.

내 얼굴
 수많은 생명과 서 사는 자의 몸집에 그려진 나란
 동물-세 살 인간을 위한 동물과 사람과 사랑의 얼굴
 수 있다.
 살아있는 동물과 사람의 마음을 그려진 나의 얼굴을
 잊지 않고서 세 번째로 그려진 동물과 사람의 마음을
 잊지는 마세요.

My face
 Human face made up with animals and plants,
 inspired by long history poem "I have realized
 that you were right."
 It indicates that we can fundamentally connect by
 realizing that you animals and I am you, beyond
 talking about animal protection and wildlife
 conservation, showing kindness and respect.



올라, 사람, 세
 200년 동안 두 개인인 everyday earthday 포스터
 광택의 줄무늬를 발견하면 관계를 우리
 행복으로 구상해 내다. 올고라는 수로, 개인
 지은, 도주는 대가를 상한다.

Poster draws on a newspaper
 After 200 years of the collaboration, everyday
 earthday in 2000, I drew friendship on
 newspaper.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of dog-human is
 represented by a single vertical line.
 Dog-human represents happiness, human
 represents happiness, and both represent
 happiness.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 더 큰
 영혼을 지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닌다면
 사랑, 사명, 존중 서로 만나서
 내일이다.

We Need Others
 We could fill each other's own
 limitations, incompleteness and
 move toward perfection and
 transcendence. I developed
 personal strength, respect,
 and love.



소통
 인간은 소통을 통해 언어와 마음의 교류를
 하게 되고 인간은 함께 지어갈 수 있다고
 증명해 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이다.

Communication
 We need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true communication,
 we understood the other's heart and
 its trustworthiness. And we can respect different
 opinions and respectability.
 I put emphasis on knowing to understand it.

제1차 세계대전부터 포스터
 나라의 새로운 삶을 일깨워 주었다.
 1915년 10월 10일 미국의 포스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터가 처음 나온, 세계대전에서 해방
 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상을 다녔다.
 우리 세 살 포스터는 사람과 동물과 사랑의 교류를
 하게 하고, 포스터는 사람과 동물과
 함께 지어갈 수 있는 힘을 지어갈 수 있다.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려라.

17th World Jamboree Handful Poster
 The poster that gave me a new life. It was one of the
 official posters of the 17th World Jamboree held
 under Union Hall in the Seowon in 1915.

DREA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3.8.1-12 SaeManGeum, Jeollabuk-do, KOREA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6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7월호부터는 오프챌린지(52페이지 참고)가 운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미(010-****-1839)



김○현(010-****-2877)



이○현(010-****-7617)



양○인(010-****-3279)



이○욱(010-****-4013)

📁 워터라운드 5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기프트콘 20명

- | | |
|-------------------|-------------------|
| 박○원 010-****-5117 | 권○아 010-****-4210 |
| 조○민 010-****-6725 | 최○준 010-****-4122 |
| 김○희 010-****-6249 | 정○영 010-****-8214 |
| 김○현 010-****-7049 | 이○혁 010-****-0226 |
| 송○영 010-****-8736 | 김○남 010-****-5413 |
| 안○현 010-****-9115 | 이○홍 010-****-2690 |
| 강○조 010-****-7559 | 남○원 010-****-9338 |
| 주○라 010-****-4041 | 김○각 010-****-1996 |
| 진○라 010-****-4490 | 주○석 010-****-4473 |
| 김○영 010-****-5040 | 김○형 010-****-6226 |

📁 #kwater워터라운드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 @eunsil2017 | @yagoori0330 | @jiyeong_danmi | @ardor_1994 | @firibaram802
 @say512200 | @jeongeunog16 | @hanna_jooh | @yangdagweon | @bts_1700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잇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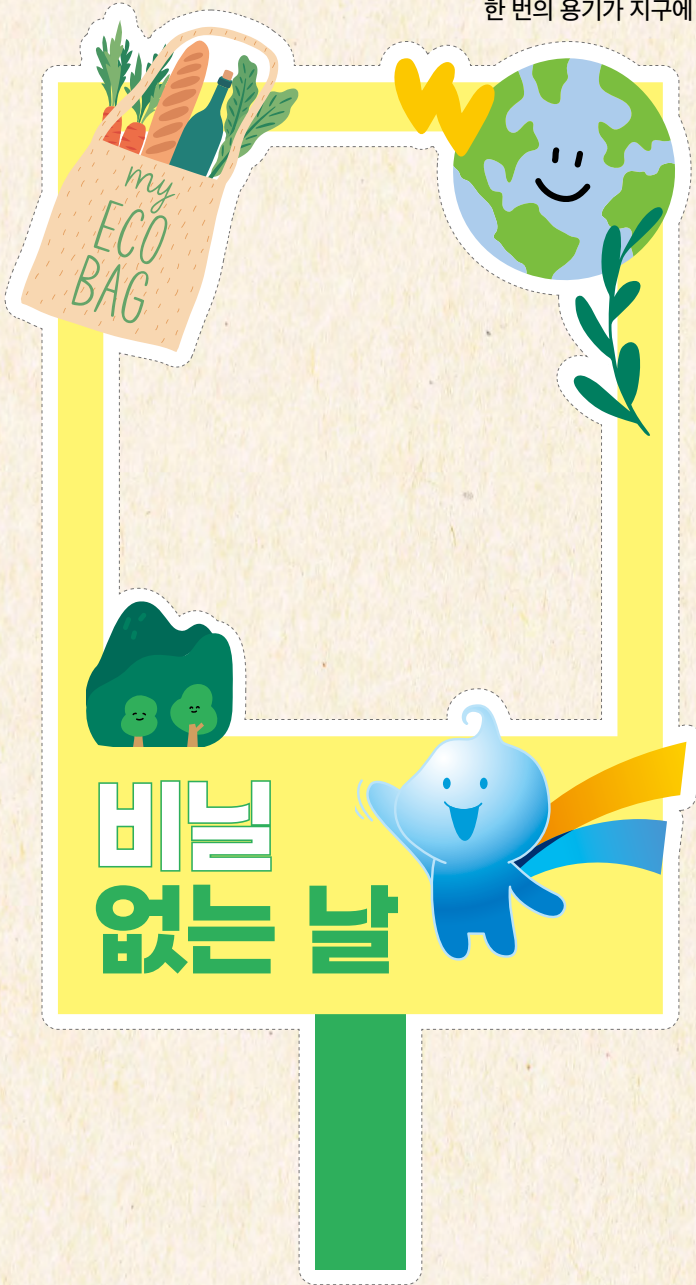
- | | | | |
|-------------------|-------------------|-------------------|-------------------|
| 김○영 010-****-4530 | 최○환 010-****-2418 | 한○욱 010-****-2895 | 김○웅 010-****-6003 |
| 정○룡 010-****-4356 | 유○리 010-****-7700 | 서○영 010-****-3618 | 박○량 010-****-4356 |
| 박○란 010-****-7998 | 최○나 010-****-6548 | 이○훈 010-****-1580 | 이○희 010-****-3887 |
| 김○휘 010-****-0545 | 장○은 010-****-9928 | 홍○진 010-****-6457 | 유○복 010-****-5274 |
| 길○배 010-****-9587 | 김○준 010-****-7788 | 허○영 010-****-0605 | 최○리 010-****-7279 |



이벤트 선물 발송일 7월 15일경
※ 7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비닐 OFF 챌린지

수 백년에 걸쳐 분해되는 비닐봉지 사용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줄여보면 어떨까요?
친구들, 동료, 가족들에게 토파 인증샷으로 챌린지를 알리고, 동참해달라고 권해보세요.
한 번의 용기가 지구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비닐봉지 OFF!
비닐봉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일상 속 제로웨스트를 실천하고(52페이지 참고)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접이식 휴대용 장바구니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접이식 휴대용 장바구니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이미지 전송
접수 마감일 7월 25일 선물 **발송일** 8월 15일경
※ 8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1Y10 표 용기 바둑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피스
지금 바로 만나기!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잠시 K-water SNS를 즐기며 휴식해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생활정보부터 잇몸 미소 짓게 만드는 방울이의 활약까지 한데 모았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아라마리나 요트 Timelapse | 아라뱃길 [사운드 오브 워터]

청량 그 자체! 아라뱃길 미니어처 풍경 타임랩스가 담긴 6월의 [사운드 오브 워터] 동영상입니다. 윤슬이 가득한 아라뱃길을 풍경을 미니어처 타임랩스로 담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편집해 특유의 청량한 여름 분위기를 자아냈다. 퀴즈 이벤트까지 더해 인기동영상으로 조회수 고공행진 중인 사운드 오브 워터에 주목해볼 것!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사운드오브워터 #경인아라뱃길 #아라폭포 #아라마리나 #미니어처 #타임랩스 #Timelapse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왜 저 떠봐요? 호로록할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방울이 #팔 #미 #유머 #패러디 #왜저떠봐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택배 상자를 활용해 만든 티코스터!

시원한 음료의 받침으로 딱 좋은 너만의 티코스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이일제로웨이스트 #티코스터 #컵받침 #택배상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K-water의 마스코트인 방울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골골 즐기고 있는 방울이, 깜짝 변신한 방울이 케링, 발등에 불 떨어진 방울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울이에 주목해보자!



#방울이 #아이스크림 #방빠리 #키링 #내가 최고



#방울이네커피만화 #내일의일은 #내일의내가



#틀린그림찾기 #라이딩 #환경의날



#잠에서깨어나 #직장인공감 #잠깨는법 #꿀팁

과연 나는 어떤 타입의 물 유형일까? 🌟

세계 최초 **물BTI**에 참여하고
구독신청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

물BTI 하고
웹진 구독신청으로
선물도 받아주세요!

이벤트 경품 설빙 1만원권 10명
접수 마감일 7월 25일
선물 발송일 8월 15일(당첨자 개별 연락)
※ 8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물BTI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